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지역아동센터장 '연합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27일 JG지역아동센터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센터장(회장 장은영)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아동 돌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간 관교체사업'에 따른 논의의 안건으로 김제시 돌봄 개선 방안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도에 처음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 및 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해 11개소에 300여 명의 아이들이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을 지원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호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는 관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로 김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초 1회 한정)

올해 5월 중순까지 대상자 135명을 지원 완료해 상반기 목표치(125명)를 초과 달성했으며, 연간 목표치(250명) 역시 무난하게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청 교통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둔산 축제 대표 산악축제로”

유희태 완주군수, 확대간부회의서 프로그램·안전관리 점검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완주 대둔산 축제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7일 유 군수는 확대간부회를 통해

“완주 대둔산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

아올 것을 대비해 인파·시설물 안전관리 계획과 교통·주정차 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문·방송·SNS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사적인 홍보를 전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초부터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시설비, 민간 경사·자본보조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여름철을 맞아 주요 사업장과 침수 취약지에 대한 안전 점검과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를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건전하고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완주 대둔산 축제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제시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추진

김제시, 민원 해결 앞장서는 위생적인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척·소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파리, 바퀴벌레 등과 같은 해충으로 인해 주민간의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전문 업체가 상반기 3회에 걸쳐 총 3,591개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소독을 추진하는데, 친환경 세제를 살포하고 세척한 후 고

온·고압 스팀으로 소독해 냄새 제거와 세균 억제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방치된 음식물 수거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지원과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음식물 수거용기의 세척, 소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과 동시에 악취가 없는 청결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추가 공모

6월 10일~12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부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이번 답례품목 선정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하고, 총무과 고향사랑기부금팀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방문접수를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

과 가공식품, 생선·제조품, 관광 및 체험서비스 등으로 신청대상은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체로서, 해당 답례품의 생산과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어 적시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다.

또한 시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모집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의 폭을 넓혔으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과 상품 우수성을 심의할 계획

이다. 시는 그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31개업체, 40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등록 한 바 있다.

쌀, 고구마, 돼지고기, 김제사랑가드, 모악산캠핑파크 이용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의 다양한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답례품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 1층 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97개소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법적문제와 현장 대응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발맞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민 정재호 변호사를 초빙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없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법률적 쟁점 및 동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위반환수사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노인학대사례,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사무담당자의 명백히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기록 기재 실수로 인해 법적 위반이 된 사례, 정당하게 대응한 사례 등 여러 판례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소꿈사', 제10회 소양마당 행사 열려

완주군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소꿈사)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한용희)이 '제10회 소양마당' 행사를 열고 감사패 수여와 다양한 부대를 진행했다.

소꿈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소통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소양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양 청소년 동지 '들락날락'의 문을 열어 청소년들과 간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논술, 통기타, 미술, 우리소리, 댄스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 25일 소양 교육문화

지원센터에서 열린 10주년 행사에는 학생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먹거리장터, 나눔장터, 게임 등이 진행되고, 2부 분 행사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소양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군수상을 수여했다. 또한, 소꿈사의 초석을 마련한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